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5	10. 02	10. 09
대 표 기 도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성 경 봉 독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9월 축복인사 - 예배 드리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교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게시판'을 많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들의 소모임 - 9월 25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구제헌금	
합계(Euro)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창22 : 8 - 13(구p28)..... 김복자 권사
 (1.Mose 22:8-13)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아케다가 주는 교훈!.....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강희수 성도

† 기도제목

1.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그게 인생이야

나이가 들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은퇴란 없다고 봅니다. 그저 현장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자리가 한국이든 네팔이든 무슨 상관이었는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를 뿐이다 살아도 천국이고, 또 부르시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네팔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10명의 후배 의사들을 대동하고 회진을 다닐 때였습니다. 나는 회진하다 말고 불쑥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쉬는 다음 다시 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당연하다 듯이 '그거야 죽는 거지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생이야 별거 아니라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요7:6)"는 예수님의 말씀을 숨 쉬는 것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숨 쉬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죽기 일주일 전에라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처 / 강원희 선교사
 (네팔 의료선교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아브라함이 받은 풍성한 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묶어야 할 것은 없나요?